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거짓 깨달음으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깨달음은 참사람의 완성을 의미한다. 자유와 평화 행복인이 되는 것이다. 하여, 깨달은 사람은 생각의 윤회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의혹됨이 없고 걸림이 없으며 속이지도 속지도 않는 사람다운 사람이다. 없으면 없는 대로 꾸미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낮과 밤이 한결같아 숨기거나 감추지 않으며 드러난 진리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를 보여도 열을 보이는 것이요 열을 보여도 하나를 감추지 않는다. 오고 감이 분명하나 집착하지 않고 있고 없음을 헤아리나 분별심에 머물지 않는다. 범부와 성인(聖人)이 둘이 아니나 차별이 없음이요 삶과 죽음이 어우러져 진솔함을 벗어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꾸밈이 없어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요, 희(喜)·노(怒)·애(哀)·락(樂)을 굴릴 줄 알아 아무에게나 착한 벗이다. 상식이 통하는 이웃이요 원칙이 지켜지는 동네 친구이다.

세를 생활화 하며 신도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으로 큰 사찰에 대중공양을 앞세우며 구걸하듯 동조세력을 넓히는 것이 깨달은 자의 자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비구는 걸사(乞士)이다. 비구가 몸에 걸치는 가사는 원래 분소의(糞掃衣)에서 출발한다. 출가(出家) 이전의 생활과 견주어 출가 이후의 생활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넘쳐나는 물질적 풍요는 없는지 살피고 또 살필 일이다.

깨닫기 이전의 구도자의 청빈한 생활과 깨달은 이후의 흥청망청 넘치는 풍요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피고 또 살필 일이다.

괴도를 이탈한 행위 자체에도 회초리를 맞을 일이지만 겨우 실눈을 뜨고 확철대오한 개안종사(開眼宗師) 인양 자신도 남도 속이는 나날의 죄업(罪業)이 죽음 문턱에 이르러 뼈를 녹이는 고통으로 다가올 터이다.

수행승은 진솔하고 순수해야한다. 깨달음을 향해 게으름 없이 꾸준히 노력하고 가난과 검소함이 생활화 되어야한다.

수행승은 진제불교(眞諦佛敎)에서

분주히 세력 넓히는 者, 수행승 아냐
꾸밈없이 진솔히 살아야 진정한 비구

눈물이 있어 마음 나누는 형제자매이고 웃음이 있어 가슴을 덮여주는 마음 편한 동무이다. 꾸미지 않는 자연이요, 머묾이 없는 바람이다. 따지며 계산하지 않고 흉보며 멀리하지 않는다. 변명으로 드러내지 않고 디딤돌로 돋보이려 키를 키우지 않는다. 감투와 명예를 멀리하고 조직과 편 가르는 일에도 졸업한지 오래이다.

모으고 챙기며 쌓아두려는 사람은 수행인이 아닌 업덩이 중생이요, 명분과 실리(實利)를 앞세워 조직 관리하는 사람은 수행인이 아닌 머저리의 무리이다. 소위, 자칭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돈과 명예, 감투를 구걸하듯 세력을 넓히는 부끄러운 짓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는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얼굴 두터운 흑암(黑暗)의 무리일터.

깨닫기 이전과 깨달은 이후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꾸미는 법문 내용과 위세를 떨치며 신도 늘리는 계산된 언행으로 수입 키우고 명예 높이는 일일터.

자유는 커녕 돋보이려는 꾸밈과 허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자가 점검을 소홀이 해서는 안 될 터이다. 목탁불교, 치마불교, 재 문화 불교로 신앙을 거래하는 듯한 부끄러운 풍토에 안주(安住)해서는 안 될 터이다, 그렇다고 세제불교(世諦佛敎)가 격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수행자라면 법(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꾸준한 탁마와 열림을 스승으로 삼아야한다.

거듭 밝히지만 수행승은 수행승다워야 수행승이다.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할 줄 알고 없으면 없는 대로 꾸밈이 없이 진솔하게 받아들이며 고마워하며 살 일이다.

출가(出家)할 때의 순수했던 초발심(初發心)으로 드러내거나 돋보이려 꾸미지 말고 한 서너 걸음 뒤로 물러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헐떡임에서 제발 자유인으로 살 일이다.

분주하게 조직을 키워가거나 세력을 넓히는 일은 수행승의 자세는 아닐 터이다. 깨달음은 참사람이요 행복과 자유를 완성하는 것이다. 거짓 깨달음으로 업덩이 중생이 되지 말 일이다. 살피고 또 살필 일이다.

새들이 꽃을 물어다 바치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선종사에 특이한 인연을 소재로 한 특이한 화두가 하나 전해진다.

4조 도신 선사와 그의 제자 우두 법융(牛頭法融:594~657) 선사 사이에 있었던 일화에서 생긴 화두다.

특이한 인연이란 보통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구하는데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 깨우쳤다는 것이고, 특이한 화두는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새가 꽃을 물어다 주었는데 가르침을 받고 난 후에는 그런 일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법융 선사가 우두산 유서사(幽棲寺) 남쪽에 별도의 선실을 짓고 깊은 선정을 닦고 있을 때 도신 선사가 소문을 듣고 유서사를 찾아왔다. 도신 선사가 유서사의 한 스님에게 물었다.

"이 절에 도인이 있는가?" 스님이 답하기를 "출가한 스님이라면 누군들 도인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도신 선사가 누가 도인이냐고 다시 물었다. 이때 다른 한 스님이 말했다.

"이 산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나융(懶融:법융 선사의 별명)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사람을 보아도 일어나지 않고 합장하여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혹 도인이 아닐까요?"

이 말을 듣고 도신 선사가 법융 선사를 찾아갔다.

도신 선사가 좌선하고 있는 법융 선사에게 물었다.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가?"

"마음을 관하고 있소."

"관하는 자는 누구며 마음이란 어떤 물건인가?"

누가 와도 일어나 인사하는 법이 없던 법융 선사가 이때 비로소 일어나 합장하고 도신 선사를 맞이하였다.

법융 선사의 수행처에는 호랑이가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이를 본 도신 선사가 손을 흔들어 겁먹은 시늉을 했다. 우두 선사가 겁내지 말라 하면서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도신 선사가 "지금 무엇을 보았는가?" 하고 물자 법융 선사가 대답을 못하였다. 도신 선사가 돌 위에 불(佛)자를 쓰고 그 위에 앉자 법융 선사가 이를 보고 매우 송구해 하였다. 도신 선사가 "아직 그런 것이 남아 있는가?"하고 묻자 법융 선사가 또 대답을 못하였다. 법융 선사는 도신 선사에게 참된 법을 청하였다. 도신 선사가 말했다.

"백 가지 법문이 모두 마음에 있고, 항하의 모래알 같은 공덕이 모두 마음에 근원이 있다. 온갖 번뇌와 업장이 본래 공적하며, 모든 인과(因果)가 죄다 꿈과 같다. 삼계를 벗어날 것도 없고 깨달음을 구할 것도 없다. 다른 법이 없으니 그대는 그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라. 관행(觀行)을 하려 하지도 말고 마음을 정화하려고도 하지 말라. 탐욕과 성냄을 일으키지도 말고 근심 걱정도 하지 말라. 선을 짓지도 말고악을 짓지도 말라. 행(行)·주(住)·좌(坐)·와(臥)에 보고 만나는 모든 일이 모두 부처의 미묘한 작용으로 진정 즐거워함도 근심함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라 하는 것이다."

법융 선사가 다시 물었다.

"관행을 하지 말라 하시면 경계가 일어날 때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경계라는 인연은 좋고 나쁨이 없지만 좋고 나쁨이 마음에서 일어나니 마음이 억지로 이름 짓지 않으면 허망한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리오. 다만 마음에 맡기어 자유롭게 하여 더 이상 다스리려 하지 않으면 그것을 변함없는 상주법신(常住法身)이라 한다."

법융 선사는 이 법문을 듣고 깨달은 후 세상으로 나와 법을 펴기 시작했다.

〈경덕전등록〉에 수록된 〈법융전〉에 의하면 유교의 경전과 역사서를 통달한 법융 선사가 어느 날 〈반야경〉을 보다가 진공의 도리를 깨닫고 감탄하여 유도와 세속의 전적이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출가를 결행하였다고 하였다.

처음 삼론종으로 출가했다가 유서사에 들어가 본격적인 선정을 닦았다.

도신 선사가 법융 선사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먼저 홍인 대사에게 법을 전했기 때문에 후대에 와서 법융 선사를 도신 선사의 방계(傍系)로 취급하지만 법융 선사의 선법을 우두종(牛頭宗)이라 하였으며, 그 종지의 특색을 무심합도문(無心合道門)이라 하였다.

우두종의 법맥도 6대에 걸쳐 이어진 것으로 나온다. 법융 선사 당시에는 홍인 선사의 법을 동산종 혹은 '동산법문(東山法門)'이라 하고 법융 선사의 법을 우두종 혹은 '무심법문'이라 하여 최초의 선종의 갈래가 이때부터 생겼다고 보기도 한다.

누구를 위해 보시 하는가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③보시가 주는 공덕

功德勝品第十六

有人等以財物施一福田。心不同故得報有種種。有得三有樂者。有得寂滅樂者。有得利他樂者。思願勝故得報不同。以愛心作福者受報時愚闇。悲心修福者受果時得於智慧。不敗壞菩提心為饒益眾生作福者。當知此福為福中最勝。其餘修福名相似福非第一福。修一味智慧。當知此福為最第一。饒益世間故三寶種不斷。知業知果知歸依佛慈悲。計我行福如行惡者甚可 愧。善丈夫者見人天世間無救。終不為己修福。生死中苦尚不可聞。況復眼見。眾生受身極可患厭。云何為我修福作業悲者所不能作。一 那頃不離悲心為眾生親友。云何為我作福。

번역 | 공덕승품 제16

어떤 사람이 하나의 복전(福田)에 보시함에 마음이 같지 않아 과보 얻음도 가지가지 있으나, 세 가지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적멸의 즐거움을 얻고, 남을 즐겁게 함을 얻고, 생각과 원력의 수승한 과보를 얻되 같지는 않습니다. 애착심으로 복을 짓는 이는 때에 따라 어리석은 과보를 받고, 자비심으로 복을 닦은 이는 때에 따라 지혜의 과보를 받기 때문입니다. 보리심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중생이 이익 되게 복을 짓는 이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복이 복 중에 가장 수승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복을 닦는다고 하지만 이름과 모습만 복과 비슷하지 제일가는 복은 아닙니다. 한 맛의 지혜를 닦되 이 복이 최고의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익 되도록 하기에 삼보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으며 업을 알고, 과를 알고, 부처님의 자비에 귀의할 줄 압니다. 나를 위해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이와 같아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선한 대장부는 사람과 하늘과 세상을 봐도 구제될 것이 없어 끝내 자신을 위해 복을 닦지 않습니다. 생사 가운데 고통도 들을 수 없거늘 하물며 눈으로 보는 것이겠습니까. 중생의 몸 받는 것을 싫어하되 어찌 나를 위해 복을 닦고 업을 지으면서 자비심을 짓지는 않는지요. 한 찰나 간에도 자비심을 떠나지 않아야 중생의 친구라 할 것이니, 어찌 나를 위해 복을 짓겠습니까.

해설 | 이제 불교를 믿는 초심자와 불교 공부를 제법 한 불자의 마음 쓰는 차이를 본문에서 발견하게 된다. 처음 절에 와서 기도를 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오로지 자신을 위한 기도에 집중하는 게 대부분이다.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부터 대학 입학시험 합격을 기원하고, 취직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득남을 바라고 가족 건강을 기원한다. 이런 기도가 잘못이라는 건 아니다. 다만, 기도하고 소원을 이루는 것을 주고받는 대가처럼 여긴다는 점이다. 기도비를 줬으니 스님은 기도를 해주어야 하고, 보시를 하며 부처님께 백팔배를 하거나 천배를 했으니 소원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심자는 사찰에 발걸음을 끊기도 한다.

이제 불교대학도 다니고 경전도 읽게 되면 기도의 방법이 조금 바뀐다. 기도란 탐욕심에 얽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일이 된다. 선한 업을 지어야 선한 과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기도에 얽매여 울고 웃는 일은 점점 줄어든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된다.

그런데, 제바보살은 여기서 더 나아가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 내기를 역설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심에서 성숙한 지혜의 신심으로 거듭나는 길을 간절히 제시한다.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사)한국불교조계종 종단 통일가사 점안법회 봉행

한국불교조계종은 미래불교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종단개혁과 혁신으로 불교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한국불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정법수행을 일으켜 세우고 법계일탈이 만연하여 해체된 승가공동체 구현과 대중공의와 종도주권의 실현을 위해 종단의 체질을 최근 새롭게 바꾸고 종단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종도들이 다함께 원융회통을 통해 종단 법인설립 이래 최초로 전통 점안의례 통일가사 점안을 봉행하여 한국불교조계종의 승려 의제를 통일하고 법계제도를 새롭게정착 조계종 정체성 확립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전법의 혁신과 종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로 종단발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여 분열과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고 소외된 종도가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창의적인 종무행정을 공평무사하게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종도들이 환골탈퇴하는 개혁을 통해 기계를 닮아가는 메마른 사회의 풍토에 깨달음의 영혼을 불어넣고 있는 종풍쇄신 운동을 진작시키고 있습니다.제방의 대덕큰스님과 전국에 계신 종도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7년 7월 1일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법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FAX : 02)720-8271 H.P : 010-5432-0108(총무원장 운산), 010-4167-3666(사무총장 도광)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